

# 가치관이 여성복 Fashion에 미친 영향 연구 -1820-1850년 영국의 이상적 여성관을 중심으로-

\* 대원과학대학 패션코디네이션과 조교수

이유경\*

## 목 차

- I. 서론
- II. 19세기 전반 영국의 여성관
- III. 복식디자인의 특징
- IV. 논의
- V 결론 및 제언
- 참 고 문 헌
- Abstract

## I. 서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착용되어 온 복식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그 시대사조가 다양한 방법으로 복식에 표현되어 왔으며,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철학, 과학, 미의식 뿐 아니라 가치관 등이 복식에 반영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시대 복식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비중은 다르며, 그에 따라 각 시대 패션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수세기간 복식은 같은 재료, 원리, 방법을 사용하여 유사한 종류로 제작되어 왔다. 그러나 표현방법이 다르고 유행이 계속해서 변하므로 복식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미묘하게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복식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정신적,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절박한 욕구의 표징이 될 수 있다. 정신적, 심리적 요구는 육체적 안락감이나 편리함, 합리적 경제성의 측면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복식은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 및 변화까지도 구체적으로 상징한다<sup>1)</sup>.

또한 인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에 이상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상형에 따라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특징 및 외형을 변화시켜 왔다. 인류의 복식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19세기 초 영국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매우 상이한 이상형을

1) 이유경, Charles Dickens 소설에 나타난 복식 상징성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30, 1993.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된 개념이었다. 즉, 남성에 대한 이상형은 강하고 활동적이며 의지가 강하고 가정의 외부에서 활동하는 모습인 반면, 이상적인 여성상은 정적이고 차분하며 가정적이고 천사와도 같이 선량한 모습이다.

이 시기는 남성관과 여성관이 가장 상이한 시대 중 하나인 바, 이상적 여성관은 여성복 패션에 반영되어 그 시대 복식 특징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복식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고 시대 구분이 명확하여 이상적 여성관이 여성복 패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초 영국인이 가지고 있던 이상적 여성관이 여성복 패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19세기 초기 약20년은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며 복식 디자인도 Empire Style이 주를 이루므로 본 연구에서는 19세기의 특징이 잘 나타나기 시작하는 1820년부터 1850년경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시대적 배경이나 예술사조 등이 그 시대 복식 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특정 시기의 가치관, 특히 이상적 여성관이 여성복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식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시도되었으며, 이는 복식사회심리학 및 복식문화사 분야 연구이론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19세기 전반 영국의 여성관

19세기로 들어오면서 '위대한 포기(Great Renunciation)'로 인해 남성들은 자신들의 의복을 통해서 더 이상 부를 과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과시적 소비'는 부인이나 다른 가족, 때로는 하인을 통한 대행적 행위로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집안의 lady는 가정의 금전적 능력(pecuniary strength)을 과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이었다<sup>2)</sup>.

2) Laver, J., *Modesy In Dress*, Houghton Mifflin Company, 78, 1969.

이 시기에는 계층의 구분없이 모든 남성의 이상형은 gentlemen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세기 전반의 이상적 여성관은 더 이상 현실에서의 여성이 아닌 최소한 lady이거나, 최상으로는 요정(fairy)이나 천사(angel)였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중세에는 천사모습에 성별의 표현이 결여되어 있었으나, 르네상스 시대의 천사는 남성적 경향이 강했다. 18세기 들어서면서 성별의 특징이 점차 증가하여 19세기에는 여성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시대 천사의 모습은 본래적 영성(靈性)이 사라지고 세속적이며 감상적이 되었다. 그들은 위엄이 있고 우아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분노하거나 보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여성은 완벽한 숙녀의 기질을 모두 갖고 있는 천사와 동일시되었으며 또한 쾌활하게 움직이는 어린이와 장난스럽고 가벼운 동작을 하는 숲의 요정이 절충된 모습이다<sup>3)</sup>. 이처럼, 1830년 이전에는 유럽에 여성과 남성은 상반되는 양극점이라는 romantic bourgeois의 기준이 우세했다. 여성은 모두 천사와 같이 선하고 밝고 빛나며, 남성은 모두 격정적인 동물적 열정과 격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즉, 그들은 하나

3) Squire, Geoffrey, *Dress Art and Society*, The Viking Press, 149, 1974.

의 선의 양끝에 서있고 보편적인 도덕과 신념으로 그 위치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그 시대의 이상적 여성관은 여성의 fashionable dress와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로맨틱 드림이 fashionable ideal로 변해감에 따라 19세기 전반 이상적 여성상의 두 가지 측면, 즉, 천사와 요정은 인기 문학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당대의 대표적 작가인 Jane Austen은 Elinor와 Marianne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자연스런 이지(理智)와 감성을 지닌 여성상을 표현했으며, Charles Dickens는 David Copperfield라는 작품에서 위엄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Agnes와 의기소침하고 부서질듯 연약한 Dora라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 전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Walter Scott도 그의 작품에서 극단적으로 여성적인 이상적 여성상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세기 전반 프랑스 문학작품 속의 대다수 여성들이 아름다운(beautiful) 것보다는 매력적인(attractive)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미'(beauty)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이 때의 '미'란 우아하고 가볍고 유연한 체격과 같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도덕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인물의 창조는 이 시기의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는 것으로, 대다수 소설에서 독립적인 여성은 주인공이 될 수 없었으며 주변인물로 등장한다. 특히 영국의 소설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광범위하게 읽혀졌는데 중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Marwick, Arthur, Beauty in History - Society, Politics and Personal Appearance, Thames and Hurdson, 186, 1988.

19세기 전반 fashionable dress의 목적은 젊고 연약한 미인이라는 이상형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발레리나였다. 여성은 그야말로 정령(spirit)이 되어 있었고, 너무나 가벼워서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그 효과는 완벽하게 그 시대의 정신을 인간화시켰다<sup>5)</sup>.

5) Squire, Geoffrey, 전 계서, 152-153, 1974.

반면, 1840년대는 정숙함(quietness)과 섬세함(delicacy)이 가장 존경받는 덕목이었다. '매우 건강함'은 서민적이고 저속한 것이었으므로 루즈는 완전히 사라졌고 창백한 피부가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유행을 따르기 위해 식초를 마시는 어리석은 젊은 여성도 있을 정도였다. 유능하고 성공한 남편들은 그의 아내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는 가정적인 덕목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내의 완전한 나태함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일이든 경시되었고, 이러한 태도를 반영하는 의복은 극단적으로 제한되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입혀졌던 여러 겹의 페티코트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었다<sup>6)</sup>.

6) Laver, J., Costume & Fashion, Thames and Hudson, 170-171, 1985.

1840년대 가정 밖 세계는 철도가 소개되고 일련의 사회적 대변동과 혁명이 극에 달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완전한 나태함은 정당화되었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체념과 순종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산업화로 인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전문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산계급 주부들은 가정안에서 참여해왔던 일의 대부분을 빼앗겨버리고 경제적으로 무용한 존재로 변한 것에 일부 기인한다. 가사는 하인들의 손에 들어가고,

7) 박오복, 이경순역, Brown, J.P., 19세기 영국 소설과 사회, 열음사, 113-115, 1990.  
8) Laver, J., Costume & Fashion, 172, 1985.

9) 박오복, 이경순역, Brown, J.P., 전계서, 115-117, 1990.

10) Squire, Geoffrey, 전계서, 154, 1974.

가정에서의 사업에는 사무원이나 점원이 중심적으로 운영해나갔던 것이다<sup>7)</sup>. 따라서 Thackeray와 같이 민감한 작가는 발목을 언급하는 것조차 무례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숙녀답고 정숙한 거동이 모든 것을 지배하였다<sup>8)</sup>.

여성들은 풍경을 스케치하고 음악이나 자수를 하고 외모나 의복을 꾸미면서 결혼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완전한 레이디가 되는 것에만 오로지 매달렸다. 이 시대에 완전한 레이디란 철저히 여가를 즐기고, 장식적이고 의존적이며 찬양을 받는 일과 출산 이외에는 해야 할 아무런 기능도 갖지 않았다. 단지 품위있게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자수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19세기 전반부 일부 개성적인 여성들은 이와 같은 품위 있고 무익한 점잖은 생활에 반기를 들기도 했으나 1850년대까지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눈을 돌린 법적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중상류계급의 부인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정숙한 숙녀에게 맞는 일로는 문필업, 저널리즘, 가정교사 정도로 생각되었다<sup>9)</sup>.

1850년대 이후에 fashionable 외모에 변화가 있었다. 여성은 수줍고 순하고 엷된 사랑을 지닌 모습으로부터 점차 자신감을 갖고 솔직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1820-30년대의 경박함은 40년대의 연약하고 경건함으로 50년대의 우아함으로 점차 변화되어 갔다. 19세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젊음을 증시하는 로맨티시즘은 유치한 넌센스로 치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fashion plate 이상형의 연령은 1840년대 17세-20세인 반면 1860년대에는 30세-35세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sup>10)</sup>.

### 3. 복식디자인의 특징

#### 1) 1820년 ~ 1836년대 복식

19세기 여성복은 182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Empire Style의 높이 올라갔던 허리선이 내려와서 정상이 되었고 허리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코르셋은 또다시 숙녀의 필수품이 되었고 어린 소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1>은 극단적으로 가는 허리를 만들기 위한 모습을 묘사한 풍자화이다. 1820년대 초 flounce, frill, 모피 등 다양하게 그 밑단이 장식되었던 스커트의 폭은 폭끼는 허리와 더불어 점차 넓어졌다. 소매도 변형되기 시작하여 1820년대에는 어깨선이 내려갔고 소매는 특히 윗부분이 넓어졌다. 처음에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간 듯 어깨에 작은 퍼프가 생겼고, 1825년경 작은 퍼프에는 투명한 거즈로 된 소매가 덧붙여지기도 했다. 이것이 불투명한 소매로 바뀌면서 이 시대를 특징짓는 leg of mutton 소매가 되었던 것이다. <도2>는 leg of mutton 소매의 일종인 gigot 소매의 펠리스와 레이스가 드리워진 커다란 모자를 보여준다. 또한 1820년대부터 리본은 의복과 모자의 특징적 장식이 되었다<sup>11)</sup>.

1830년대의 스커트는 1820년대의 tubular silhouette에서 점차 bell-shape으로 바뀌어 길고 풍성하게 되었다. Young<sup>12)</sup>은 1830년부터 1868년까지의 38년간을 허리는 가늘게 조이고 치마는 극단적인 상태까지 넓어지게 되는 시기로 구분하며 중

11) Wilcox, Turner, The Mode in Costume, Charles Scribner's Sons, 261-262, 1958.  
12) Young, Agnes Brooks, Recurring Cycles of Fashion - 1760-1937, Harper & Brothers Publishers, 79-80, 1937.

13) Wilcox, Turner, 전계서, 262, 1958.

모양은 왕권의 과시와 위엄을 나타내는데 가장 알맞다고 주장한다. 소매 역시 대단히 넓어졌으며, 소매를 더욱 넓히기 위해 깃털 쿠션이나 나뭇가지의 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했다<sup>13)</sup>. 말털과 고래수염으로 뽀뽀하게 한 leg of mutton 소매는 그 크기가 절정에 이르렀으며, 1832년경 지나치게 커진 balloon-sleeve는 오리털로 채운 sleeve-pillow를 사용하여 지탱하였다. 그러나 소매확대 경향은 점차 퇴조되어갔으며, sleeve-pillow가 사라지면서 소매의 풍성함이 팔꿈치로 드리워지게 되었다. 1835년 이후 소매는 점차 작아지고 부풀림은 사라졌다.

14) Laver, J., Costume & Fashion, 163-164, 1985.

칼라는 넓고 평평한 pelerine가 널리 애용되었고, 때로는 그 끝이 길게 드리워지는 fichu-pelerine가 사용되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의복을 연상시키는 ruff 칼라 또한 유행이었다. Evening wear로는 네크라인이 많이 파인 드레스를 입었으며 때로는 매우 극단적인 것도 있었다. 모자도 거대해졌다. Hat은 차양이 대단히 넓어졌고 밀짚뿐 아니라 실크, 새틴으로 만들어졌으며 강렬한 색채의 꽃이나 리본, 깃털로 장식되었다. 집에서 쓰는 day cap 뿐 아니라 터번 역시 매우 넓어져서 터번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hat처럼 보였다. 헤어스타일은 매우 정교했으며, 컬진 앞머리를 내리기도 하고 뒷머리를 chignon 스타일로 하기도 했다. 만찬시에는 가발을 사용하여 apollo knot 스타일을 하기도 했는데, 머리를 위로 올리고 고정하여 꽃, 깃털, 빛으로 장식하였다<sup>14)</sup>. 이 시대 신발은 발레리나 신발을 연상시키는 매우 좁고 가볍고 유연하고 굽이 없는 slipper형이었고 밑창은 착용자의 발보다 약간 작게 만들어졌다. 발등부분의 천은 발을 타이트하게 감싸서 날씬하고 길고 우아하게 보이도록 했다. 이 시대의 발레리나는 보편적으로 이러한 신발을 신고 허리에 작은 거즈 날개가 달린 머슬린 ball-gown을 입고 사뿐히 뛰어다녔다<도3>.

15) Laver, J., 상계서, 165-166, 1985.

낮시간 외출용 외투로는 거대한 소매와 여러 개의 케이프가 달린 펠리스가 주로 착용되었다. Evening dress에는 여러 종류의 맨틀이 착용되었다. 쇼올도 착용되었으나 그 전보다는 감소되었고 머프도 약간 감소하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유행되었다. 부채는 이브닝웨어에 필수품이었고 파라솔은 fashionable한 여성의 또 다른 필수품이었다<sup>15)</sup>.

16) Wilcox, Turner, 전계서, 272-273, 1958.

## 2) 1837년 - 1850년대 복식

1837년경 로맨틱하고 화려한 모드는 변형되기 시작하였다. 스커트는 길고 풍성하여 걸을 때 발목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앞면이 장식된 뽀뽀한 코르셋은 신체에 밀착되었다. Bertha collar, fichu, frill은 쳐진 어깨를 강조하였고, day dress는 목이 높게 올라왔다<sup>16)</sup>. 소매의 팽창은 줄어들기 시작하여 40년대의 대표적 소매 중 하나는 close fitting이었다. 1840년 여름에 Amadis 소매라 불리는 긴 타이트 소매가 등장했는데 1841년에는 보편적이 되었다. 이러한 소매는 어깨선보다 매우 낮게 달렸으므로 착용자는 거의 팔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도4>. 이처럼 40년대의 소매는 타이트하거나 아랫부분이 확대되었으며, 바디스는 더욱 장식적이었다<sup>17)</sup>.

17) Laver, J., Costume & Fashion, 173-174, 1985.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머리장식으로, hat 대신 머리에 꼭 맞는 본넷을 턱 아래에서

뒀었다. 본넷의 챙은 턱아래에 거의 닿을 정도로 얼굴을 감싸게 되어 극단적으로 정숙한 인상을 제시하며 1840년대를 특징적 여성모습을 형성한다. <도5>는 1840년의 fashion plate로서 30년대의 정교한 모자가 정숙하고 작은 poke bonnet으로 대체되었음을 보여준다. 본넷 뿐 아니라, 실내용 모자, 취침용 머리쓰개도 얼굴 옆면까지 내려와 얼굴을 감쌌으며 색상은 밝은 색상에서 진녹색이나 갈색 등 수수한 색상으로 바뀌었다. <도6>에서는 이러한 본넷 뿐 아니라 투명한 머슬린의 pelerine와 빅토리아풍의 윗부분에 퍼프가 있는 소매 등을 잘 볼 수 있다. 그러나 40년대 후반 점차 본넷은 작아지고 수직적 타원형에서 원형의 본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1850년대에는 40년대의 겸손한 여성 모습이 사라졌으므로, 얼굴을 가리던 본넷도 사라지고 가장 우미하고 비실용적인 디자인이기는 하나 양산으로 대체되었다<sup>18)</sup>. 1840년대는 얼굴에 드리워지는 컬진 머리를 제외하고는 정교한 헤어스타일도 사라졌다.

18) Gernsheim, Alison, Victorian & Edwardian Fashion, Dover Publications, Inc., 29 & 41, 1963.

1840년대의 의복재료는 다양한 실크였다. 줄무늬, 격자무늬, 작은 프린트무늬 또는 무늬 없는 것, 다양한 색상이 나는 것 등이었다. Day dress에 많이 사용되던 재료는 broadcloth, merino, organdie, gingham, tartan 등이고 evening dress는 주로 shot silk<sup>19)</sup>나 벨벳으로 만들어졌다<sup>20)</sup>.

19)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실크  
20) Gernsheim, Alison, 전계서, 27, 1963.

이 시기의 여성복은 바디스와 스커트가 대개 하나로 이어져 만들어졌고 hook등으로 뒤에서 꼭맞게 여며졌다. 40년대 후반부터는 스커트와 분리되는 자켓형도 볼 수 있는데 꼭맞는 형이며 앞으로 단추를 여미는 것이었다. 스커트는 안감으로 인해 뽀뽀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졌고 때로는 뒤쪽 윗부분에 모직 안감이 부착되기도 했다. 여러 겹의 페티코트가 착용되었으며 스커트는 거의 항상 두세겹 이상의 플라운스와 그 외의 각종 장식으로 치장되었다. Laver<sup>21)</sup>는 이 시대의 의복 착용 동기 중 하나는 착용자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하인들을 고용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1840년대의 이브닝 드레스는 네크라인이 낮아져서 어깨가 드러났고 수평으로 가로지르거나 가운데가 약간 더 파인 것도 있었다. <도7>에서는 가슴이 낮게 파인 이브닝 드레스와 컬진 옆머리가 자연스럽게 드리워지고 뒷머리는 묶은 후 다시 드리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소매를 반쯤 덮는 커다란 bertha collar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레이스나 프릴 또는 리본으로 만들어졌다. 바디스는 앞끝이 뾰족하게 내려오고 딱딱하게 만들어진 것을 주로 착용하였다. <도8>은 딱딱하고 뾰족한 바디스와 낮은 네크라인, 레이스로 된 Bertha collar, 폭넓은 스커트를 입고 있다. 리본으로 장식된 손목 길이의 장갑을 끼고 커다란 이브닝 손수건을 들고 있으며, 컬진 옆머리를 길게 드리우고 있다.

21) Laver, J., Costume & Fashion, 172-173, 1985.

1840년대의 외출용 외투는 다양했다. 쇼울이 다시 애용되었고 가장자리에 프린지가 달려 있어 매우 커다란 형태도 있었다. 또한 빅토리아 여왕이 Balmoral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스코틀랜드 풍이 유행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동안 수입 캐시미어의 대체물이었던 페이즐리 쇼울의 인기도 높아졌다. <도9>는 day dress로 빅토리아 여왕의 Balmoral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사용이 장려되었던 Scotch plaids를 보여주며, 1840년대의 극단적 정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쇼울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22) Laver, J., 상계서, 175, 1985.

23) Cunnington, W. & Cunnington, P.,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95, 1981.

24) Waugh, Norah, Corsets and Crinolins, B. T. Batsford Ltd. 79, 1954.

25) Cunnington, W. & Cunnington, P., 전계서, 83, 1981.

cloak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이는 케이프, 소매, 팔의 슬릿 유무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이 붙여졌다. 1840년대에는 여성을 가능한 한 작아보이도록 모든 것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체형이 작은 빅토리아여왕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발은 대개는 뒷굽이 없는 slipper 형태였으며, 때로는 발레리나와 같이 발목까지 레이스가 달리기도 했다. 대단히 작은 발은 상류계급의 상징으로서 숭상되어졌다<sup>22)</sup>.

또한, 코르셋은 1830년대 지나치게 꼭끼는 것을 착용함으로써 똑바로 앉을 수도 없을 정도였으나 1840년대에는 코르셋이 가슴까지 올라오고 힙까지 내려갔다<sup>23)</sup>. 코르셋의 허리가 점차 길어짐에 따라 여러 조각의 천이 더 추가되어 허리 곡선을 살리게 되었다. 또한 1830년대 이후 치마가 넓어짐에 따라 코르셋의 길이도 짧아졌다. 이 당시 코르셋은 대개는 뒤에서 끈으로 묶어졌고 1840년대까지는 어깨끈이 있었다<sup>24)</sup>. Bell 여사는 1831년 Queen Adelaide의 코르셋에 인도 고무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재료의 도입은 코르셋 제작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다<sup>25)</sup>. <도10>은 1830년대의 길이가 긴 코르셋을 보여주고 있다.

#### 4. 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시대의 여성관 또는 여성에 대한 이상형은 여성복 패션을 통해 최대한 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1820년대 이후 이상적인 여성상은 쾌활하고 장난스럽고 가벼운 숲속의 요정이나 정령 또는 선하고 밝고 빛나는 천사의 이미지로서 가볍게 뛰어다니는 미성숙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이상형은 단정하게 벨트를 맨 꼭 끼는 허리와 발목 길이의 넓은 치마, 화려하고 윗부분을 부풀린 소매 등의 hourglass silhouette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스커트보다 약간 짧은듯한 발목길이의 치마는 경쾌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숲속의 요정이나 천사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흔들거리는 깃털 장식, 장식적인 리본과 소세지 컬 등을 통해 경쾌한 움직임과 끊임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것 같은 가벼운 자태와 외모를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유연하고 장난스러우며 미성숙한 소녀다운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매우 좁고 유연하고 굽이 없는 slipper 형식의 신발은 가볍고 동적인 발레리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37년 젊은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와 함께 천사 또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던 이상적인 여성관은 성숙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뛰어다니는 듯한 가벼운 자태도 감소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1830년대의 부풀린 소매, 상대적으로 짧은 발레리나와 같은 치마, 높이 세운 헤어스타일과 화려한 모자 등의 로맨틱 패션은 변화됨을 볼 수 있다. 로맨틱시즘의 천사와 같은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상형 대신 연약하고 섬세하며 진지한 측면이 요구되었으므로, 여성의 치마는 바닥에 끌릴 정도의 길이로 다시 길어지게 되었고 확대되었던 소매는 정숙하고 암전하게 변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소매진동돌레가 너무나 작고 소매는 꼭맞아서 팔을 머리위로 올릴 수도 없는 매력적인 조각 같은 모

26) Cunningham, W. & Cunningham, P., A Picture History of English Costume, Vista Books, 93, 1960.

습이었다. Cunningham<sup>26)</sup>은 이 시기의 여성복식은 여성을 실내생물 (indoor creature)로 간주하는 듯하다고 하여 그 시기 여성의 정숙한 무력감 뿐 아니라 이상적 여성상과 복식디자인과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7) 귀가 축쳐진 애완견

꼭끼는 상체와 소매 뿐 아니라 더욱 길어진 코르셋의 착용은 여성들의 비활동성을 더욱 강조하여 이 시기의 이상적 여성상인 숙녀다운 무기력함과 정숙함을 대변한다. 또한 1840년경 췌이 좁아진 본넷은 얼굴주변에 감싸지듯 착용되었고 앞가리마가 있는 헤어스타일은 bandoline으로 발라붙이고 귀 아래로는 긴 spaniel<sup>27)</sup> ringlet을 늘어뜨려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소심하고 무능한 여성상은 신체를 덮어씌우는 쇼올로써 더욱 강조되었으며 시선은 항상 치마아래를 향하도록 내리깔아 정숙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전체적인 구성은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매끄럽게 윤기가 나는 머리카락을 지나 쳐진 어깨, 길어진 상체, 여러 겹의 페티코트로 받쳐지는 무겁게 끌리는 치마의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천사 또는 숲속의 요정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이전의 생동감있는 어린 소녀와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무기력하고 수줍어하고 진지하며 날씬한 숙녀 모습으로의 변화 과정을 잘 볼 수 있다<sup>28)</sup>.

28) Squire, Geoffrey, 전 계서, 159, 1974.

이처럼 19세기 중 가장 정적인 시기였던 1840년대는 숙녀답고 정숙하며 수동적인 태도가 모든 것을 지배하였으므로 외출시의 여성복은 정숙함을 표현하도록 인체를 대부분 덮은 유형이다. 정면에서 보아야만 얼굴을 볼 수 있고 bavolet이나 curtain이 달려 뒷목까지도 덮는 poke bonnet, 의복 속으로 숨으려는 듯 온몸을 감싸는 쇼올 또는 맨틀을 착용하였으며 이는 이 시기 여성관에 따른 독특한 외모를 나타내고 있다. 발과 사지(limbs)(다리는 언급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는 치마에 의해 감추어져 슬리퍼를 신은 작은 발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소매는 팔을 완전히 덮었으며 실내에서조차도 손에는 대개 장갑을 꼈다. 이브닝 웨어의 데콜레테를 제외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여성이 의복으로 감싸여진 시기는 일찌기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실크, 레이스, 꽃, 깃털, 고리모양의 걸친 옆머리 등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금단의 열매와도 같았다. 이것은 Gernsheim<sup>29)</sup>이 Victoria 여왕시대의 fashion 연구를 통해 의복은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 및 여성관을 표현한다고 지적한 바와 같다.

29) Gernsheim, Alison, 전 계서, 25-26, 1963.

이 시기의 지배적인 인상은 아름다운 실크와 우미한 장식에도 불구하고 엄격함, ball dress의 데콜레테에도 불구하고 훌륭함이다. 이는 낮고 넓은 네크라인이지만 뾰뾰한 bertha와 딱딱하게 심을 넣은 바디스 때문이다. 즉, 19세기의 의복은 이 시대의 여성관에 따라 항상 여성을 제한하고 억제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따라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sup>30)</sup>. 이처럼 복식의 디자인 및 착용 방법은 표현하고자하는 이상적 모습을 연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30) Marwick, Arthur, 전 계서, 186, 1988.

그러나 1850년대로 접어들면서 여성은 성숙되어졌다. 1851년경에는 40년대의 평범하고 무미건조함이 풍부함과 확실성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따라서 복식의 가늘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곡선은 점차 넓어지고 둥근 곡선으로 변하여 넓은 치마는 확대라



는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듯 다양한 장식으로 더욱 넓어보이도록 했다. 본넷도 측면이 원형의 챙모양대로 다시 넓어졌다. 이처럼 넉넉하고 건강하고 기품있는 모습이 40년대의 병약하고 천사와 같은 인형의 모습을 대신하게 되었다. 의복재료도 진지한 40년대의 섬세하고 유백색의 다양한 색상을 내는 shot silk 대신 50년대에는 거칠고 명료하고 화려한 것으로 변해갔다<sup>31)</sup>.

31) Squire, Geoffrey, 전 계서, 161-162, 1974.

〈표1〉 이상적 여성관과 여성복 디자인과의 관련성

구분 연도	여성관	여성복 디자인 특징
1820- 1836	<p>〈요정, 정령, 천사의 이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쾌활함, 밝음</li> <li>* 장난스러움, 가벼움</li> <li>* 유연함, 젊음</li> <li>* 움직임, 동적</li> <li>* 선함, 도덕적</li> <li>* 미성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꼭끼는 허리</li> <li>· 발목 길이의 넓고 밑단이 장식된 스커트</li> <li>· 윗부분이 확대된 소매 ; leg of mutton sleeve, gigot sleeve, balloon sleeve</li> <li>· pelerine collar</li> <li>· 크고 장식적인 모자</li> <li>· 정교하고 컬진 hair style ; sausage curl, apollo knot style</li> <li>· 좁고 가볍고 유연한 slipper형 신발</li> <li>· 흔들거리는 깃털 장식</li> <li>· 허리에 달린 작은 거즈 날개</li> </ul>
1837- 1850	<p>〈정숙하고 연약한 숙녀의 이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건함, 진지함</li> <li>* 품위</li> <li>* 섬세함</li> <li>* 병약, 연약, 무기력, 창백함</li> <li>* 수동적, 의존적, 인형같은</li> <li>* 날씬함</li> <li>* 수줍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고 풍성한 스커트</li> <li>· 잘못거나 아랫 부분이 확대된 소매</li> <li>· 처진 어깨 강조</li> <li>· 장식적 bodice</li> <li>· 얼굴을 감싸는 poke bonnet</li> <li>· 신체를 덮는 shawl 또는 mantle</li> <li>· 레이스, 리본, 프릴로 된 커다란 bertha collar</li> <li>· 작고 발목까지 레이스 달린 slipper 형태의 신발</li> <li>· fichus</li> </ul>

이처럼, 이상적 여성상이 변함에 따라 그 시대의 복식 디자인도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시대의 여성상은 여성의 복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복 뿐 아니라 hair style, 신발, 장신구 및 세부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활용되고 있다. <표1>은 이러한 여성복 디자인과 이상적 여성상과의 관련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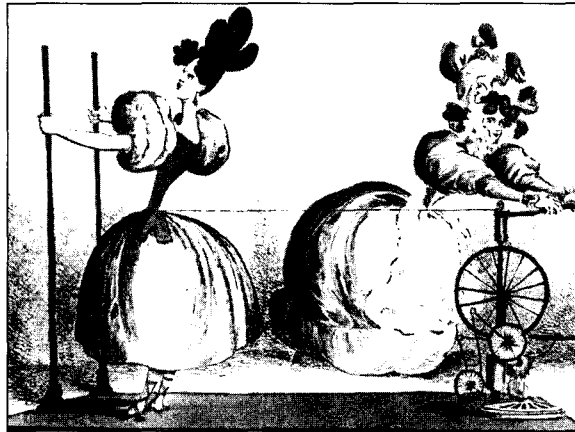
## 5. 결론 및 제언

복식은 그 시대 특징 및 사조를 반영하는 대표적 대상으로, 특히 여성복은 그 시대의 이상적 여성상을 표현하고 완성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1820-1850년대 영국의 이상적 여성상과 여성복 디자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양복식 변천사에서 로맨틱 시대라고 분류되는 이 시대는 1837년을 분기점으로 두시기를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요정, 정령, 천사의 이미지가 이상적 여성상으로 이는 가벼움, 쾌활함, 유연함, 움직임, 젊음 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의복은 발목 길이의 밑단이 넓은 스커트, 꼭끼는 허리, 윗부분이 넓은 소매, pelerine collar, 흔들거리는 깃털 장식, 정교하고 곱진 hair style, 좁고 가벼운 발레리나 신발 등으로 나타난다.

두번째 시기는 정숙하고 연약하며 수동적인 숙녀의 이미지가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이는 경건함, 섬세함, 무력함 및 창백한 피부 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의복은 길고 풍성한 스커트, 잘 맞거나 밑부분이 넓은 소매, 움직임을 제한하는 dropped sleeve, 얼굴을 완전히 감싸는 본넷, 신체를 덮는 커다란 쇼울, 수수한 색상 등으로 표현된다.

이로써, 이상적 여성관이 그 시대 여성복 패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가치관이 의복을 통해 명확하게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시대로까지 확대하여 이상적 여성관과 여성복 패션과의 상호관련성을 고찰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며, 나아가서는 문화의 한 영역인 복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분야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 후학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도1〉 Cunnington, W., & Cunnington, P., A Picture History of English Costume, Vista Books, 106, 1960.



〈도2〉 Cunnington, W., & Cunnington, P., A Picture History of English Costume, Vista Books, 107, 1960.



〈도3〉 Squire, G., Dress Art and Society, The Viking Press, 150, 1974.



〈도4〉 Gernsheim, A., Victorian & Edwardian Fashion, Dover Publications, Inc., 41, 1963, 도 16.



〈도5〉 Laver, J., Costume & Fashion, Houghton Mifflin Company, 166, 1969, 도 187.



<도6> Gernsheim, A., Victorian & Edwardian Fashion, Dover Publications, Inc., 34, 1963, 도3.



<도7> Cunnington, W., & Cunnington, P., A Picture History of English Costume, Vista Books, 111, 1960



<도8> Cunnington, W., & Cunnington, P., A Picture History of English Costume, Vista Books, 113, 1960



<도9> Laver, J., Costume & Fashion, Houghton Mifflin Company, 171, 1969, 도191



<도10> Waugh, N., Corsets and Crinolins, B.T. Batsford Ltd, 138, 1954, 도105.

Abstract

Influence of Value on the Women's  
Clothing Fashion  
-focus on the ideal images for women of England  
between 1820s and 1850s-

\* Dept. of Fashion  
Coordination  
Daewon Science College

Yu-Kyung, Le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deal images of women and women's clothing fashion England between 1820s and 1850s. The age was divided into two periods, which were 1820-1836 and 1837-1850. During the first period, the ideal images of women were those of fairy, spirit, and angels, which were expressed by tight waist belt, wider and shorter skirt, top expanded sleeve, wide and flat pelerine collar, feather decoration, elaborate and curly hair style, narrow and light ballerina shoes etc..

During the second period, the ideal images for women were those of lady with modesty, quietness, and weakness. They were expressed by long and full skirt, tight or bulge over the lower arm sleeve, dropped sleeve, poke bonnet, body wrapping large shawl and sober color etc..

The result shows that the ideal images of women in 19th century England were concretely expressed by various clothing fashion including hair style, shoes, and decoration. This study sheds light on psychological, historical, and theoretical approaches to clothing.